

<환송대>

실존하는 인간을 가로지르는 시간-기억-이미지

김서울

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ACT!

편집위원



연재 영화 목록

1. <애프터 양>, 코고나다, 2022
2.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 마이클 알메레이다, 2017
3. <에이아이>, 스티븐 스피버그, 2001
4. <환송대>, 크리스 마르케, 1962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영화 속 기술과 기억, 그리고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달려온 짧은 연재의 마지막 시간이다. 지난 호들에서 살펴본 세 편의 영화는 21세기에 공개된 작품들이다. 가장 최근의 영화에서 출발하여(<애프터 양>) 가장 예전의 영화(<에이아이>)와 만났다. 이번에는 1960년대로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세계영화사의 중요한 단편영화 중 한편으로 손꼽히곤 하는 작품을 방문하려 한다. 테리 길리엄의 <12 몽키즈>(1996)를 비롯하여 후대의 SF 영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으며, 이미지와 기억의 관계를 탐구하는 예술의 훌륭한 참조가 된 영화인 크리스 마르케의 <환송대>(1962)다.



<환송대> 1962

감독 : 크리스 마르케

내레이터 : 장 네그로니

출연 : 엘렌 샤틀랭, 다보스 해니크,

재닌 클라인, 자크 르두

영화가 시작하면 비행장의 활주로가 화면에 들어서고, 자막과 내레이션이 영화의 배경과 설정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유년 시절의 이미지 하나가 각인된 한 남자의 이야기다. 너무나 폭력적이어서 그를 뒤흔들어놓았던 장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가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된 장면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몇 년 전 오를리 공항의 거대한 환송대에서 벌어졌다.” 28분여라는 짧은 시간 동안 <환송대>가 가로지르는 시공간 속의 이야기는 대답하면서도 농밀하다. 주인공의 유년 시절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의 일대기를 그리면서 다른 쪽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배경 속 생존을 위해 폭압적 기제가 작동하는 세계를 묘사하며, 가상의 시간대에서는 주인공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 마주하고 싶었던 여성과의 만남을 그려낸다. 이처럼 시공간을 넘나드는 시간여행의 서사를 지닌 <환송대>는 SF의 장르적 속성을 지닌다. 하지만 무엇보다 영화의 핵심을 이루는 건 바로 기억의 서사다.

<환송대>를 본 사람이라면 영화에 드러나는 장치들을 자연스레 언급하게 된다. 영화를 보는 누구든 <환송대>라는 영화가 지닌 독특한 구성을 지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는 많은 영화는 초당 24프레임, 즉 1초에 24번의 각각 정지된 이미지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준다. 영화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쇼트(shot)를 편집할 때, 다음 쇼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연결점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고 단위당 많은 정보를 실 새 없이 휘몰아치듯 제시한다. 이는 쇼트와 쇼트 사이가 단절감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실감을 주기도 한다. 통상의 영화는 관객이 눈을 돌리지 않고 몰입하게 만드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둔다. 화면으로부터 거리감을 확보할 시간이나 여유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크리스 마커가 직접 촬영한 인물과 풍경의 사진들, 즉 정지된 이미지들을 이어 붙여 만든 <환송대>는 단속적인 감각이 도드라지는 작품이다. 이 같은 영화의 구성은 기억이 재생되는 방식과도 맞아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특정한 시공간 속의 상황을 담은 사진은 파편화된 이미지들로 존재하곤 하는 기억과 닮아있다. 제각기 떼어놓고 보면 선명한 듯이 보이나, 전체로 봤을 때는 연속성을 띠기보다는 분절된 형상들에 가까운 것이 곧 우리의 기억이기도 하다.

또 한 가지 특기할 지점이 있다. 사진 이미지들로 구성된 <환송대>는 사진들을 단순히 정지된 슬라이드 컷들을 프레젠테이션하는 형태로 나열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사진-이미지를 단순 배열하는 행위는 자칫 이미지들을 의미 없이 연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우선 <환송대>에는 움직이는 장면이 존재한다. 주인공이 유년기에, 꿈속에서 찾던 한 여성이 아침잠에서 깨어 카메라 정면을 응시하는 장면이다. 영화 속 이미지들이 일종의 슬라이드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으로만 생각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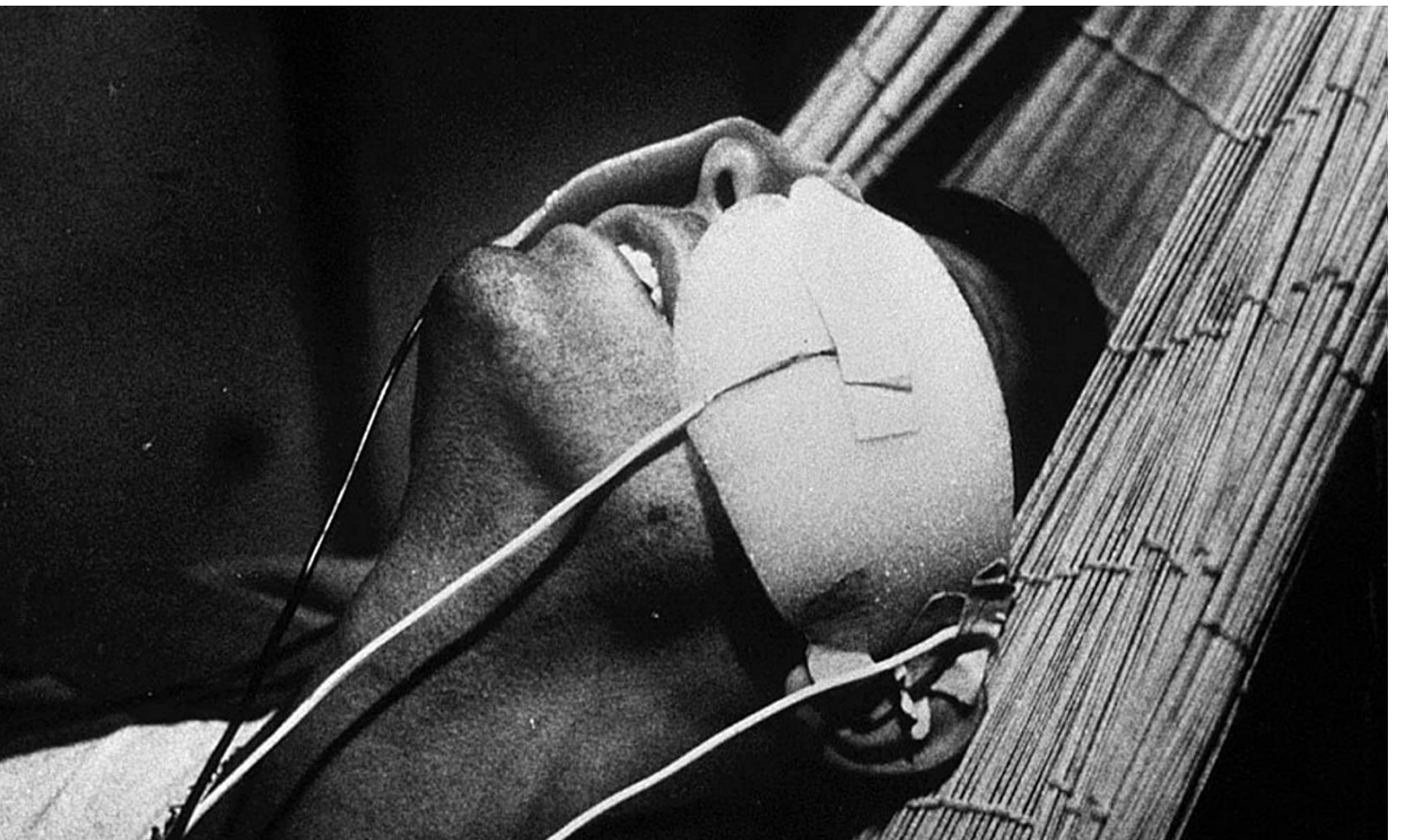


던 이들에게는 사고의 전환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장면 일 것이다. <환송대>는 디졸브, 페이드아웃, 줌 인/아웃 등의 다양한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풍성한 사운드의 영화이기도 하다. 실험에 고통스러워하는 자의 맥박 소리, 적재적소에 삽입되어 극적인 울림을 배가하는 트레버 던컨의 웅대한 음악, 성찰이 깃든 독백과 내레이션이 이미지들에 더해진다. <환송대>의 주인공은 유년기 시절 자신의 인상에 강렬히 남은 이미지에 집착하면서도, 극 중 내레이션을 통해 전달되는 것처럼 자신이 기억하는 이미지들을 끝없이 의심하고 그 앞에서 머뭇거린다. <환송대>는 폐허가 된 시공간에 놓인 한 범상한 인물이 운명과 마주하며 겪는 감정들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다.

<환송대> 속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시간대에서 파리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이 죽었고, 대부분의 세계는 방사

능에 오염되어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궁전의 지하통로에 터를 잡은 생존자들은 자신을 승자라고 믿으며 쥐들의 왕국에 보초를 세운 어떤 사람들과 포로가 된 다른 사람들로 나뉜다. <환송대>의 주인공은 승자가 아니라 포로 중의 한 명으로 혼란을 겪는 한 평범한 인물이다. 크리스 마르케(1921~2012)는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조국인 프랑스를 포함하여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하며 역동적인 사회 변화의 흐름을 실험적인 다큐멘터리의 작업 속에서 담아낸 감독이었다. 전쟁이라는 상흔을 만들어낸 국가 폭력과 제도의 모순이 절정으로 들끓었던 시기이기도 했던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마르케는 카메라를 들고 그러한 시기를 온몸으로 돌파한 감독이었다. 그의 카메라가 초점을 둔 건 권력을 움켜쥔 자들이 아닌 평범한 이들이었다.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평화가 들어서는 듯했던 시기에



도 이면에 자리한 문제들은 은폐되거나 지속되곤 해왔다. 반대로 비관적으로만 보이는 세상의 어딘가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 태동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크리스 마르케의 또 다른 대표작 중 하나이자, <환송대>가 나온 이듬해인 1963년에 공개된 <아름다운 5월>은 함께 놓고 볼만한 작품일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발생한 알제리 전쟁에 관한 예비 양 협정이 맺어지고, 경제가 호황을 맞이하는 듯했던 시기였기에 프랑스에는 희망찬 전망이 드리운 듯 보였다. 그러나 ‘아름다운 5월’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담아내는 현실은 막상 아름답지만은 않다. ‘파시즘 반대’나 ‘알제리의 평화’ 같은 구호를 내세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행한 폭력도 담아내는 이 다큐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파리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중년 남성은 시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피곤한 삶을 보내기에 행복을 느끼기 힘들다는 말을 털어놓는다. 파리의 소시민들이 겪는 궁핍한 삶 또한 여전

〈환송대〉의 주인공은 유년기 시절

자신의 인상에 강렬히 남은 이미지에

집착하면서도, 극 중 내레이션을 통해

전달되는 것처럼 자신이 기억하는

이미지들을 끝없이 의심하고 그 앞에서

머뭇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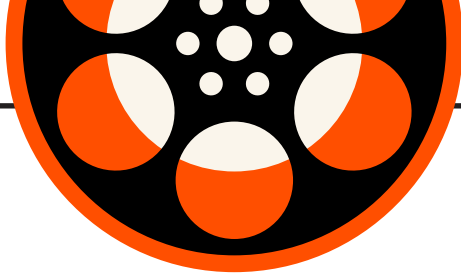
했다. 이처럼 크리스 마르케는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장을 비추며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순간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 3차 세계대전이라는 사건을 무대로 하는 <환송대>를 동시대에 들여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실험 대상으로 간택된 운명을 지닌 주인공의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람들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과 공명하지 않을까. 이 영화가 나온 2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그랬을 테지만, 오늘날의 세계에도 경종을 울리는 것만 같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패권 경쟁, 이란 히잡 시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등등...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형성되는 갈등과 대립, 우리를 감

돌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은 각기 다른 지형에서 종적을 감추지 않는다. 현실에 혼돈이 드리울 때마다 이러한 세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격언이나 사상이 주목받곤 한다. 작가 리베카 솔닛은 <이 폐허를 응시하라> 등의 저서를 통해 혹자에겐 사뭇 낭만적으로까지 비칠 만큼 재난이라는 현상에 부여된 암울한 통념을 걷어내고, 재난을 이겨내려 연대하는 사람들에게서 피어나는 희망을 기어코 보아내려 한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오히려 변화가 가능하며, 최상의 변화를 위한 도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바 있다.¹⁾ 비관과 낙관이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일지 모른다. 소소한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거대한 파국 앞에서 좌절하는 것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도 하니까.



1. 임지영, "우리에게는 희망을 꿈꿀 책임이 있다", 시사IN, 758호, 2022.03.28



미래가 불확실하고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오히려 변화가

가능하며, 최상의 변화를 위한 도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바 있다. 비관과 낙관이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일지 모른다.

기술 발전의 의의와 한계를 조명하는 것도 어느 한쪽의 잣대만으로 단정 지을 사안은 아닐 것이다. 이는 카를 마르크스 같은 사상가의 사고를 관통하기도 했다. 마르크스를 불순분자로 부정하든 혹은 혁명가로 긍정하는 사람들이든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단순히 만악의 근원으로 간주했다는 식의 오해를 흔히 하곤 한다. 그러나 그는 당대 산업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이 일궈낸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이를 넘어설 다른 세계를 고민했던 인물이었다. 예컨대 마르크스의 대표 저작인 <자본론>은 혁명을 선전하는 저술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파악한 자본주의의 동학을 분석하는데 집중한 저서였다. 물론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지만, 경제학자 조지프 슈페터도 마르크스가 여타의 경제학자들과는 다르게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힘을 자본주의의 내적 동학에서 보아내려 했던 점을 지적했다. 슈페터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불러오는 건 창조적 혁신이며,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통해 경제가 기술의 발달에 얼마나 잘 적응해 나가는지를 설명하려 했다. 한편 마냥 낱아 보이는 것들과 전연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한데 공존하거나 충돌할 때에도 긴장감이 형성되곤 한다. 기술의 도약으로 재편되는 산업 구조를 어떤 위치에서 무슨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동시대의 4차 산업, 플랫폼,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에도 다양한 시선들이 대립할 수 있다.

기술 혁신을 소재로 삼는 낙원의 유토피아나 절망의 디스토피아 서사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왔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에 그토록 매혹되곤 하는 이유는 왜일까. 낙원이나 지옥에 이르는 하나의 길에 몸을 맡기기 쉬운 이유 때문은 아닐까. <환송대>라는 영화와는 무관하나 거창하고 장황한 잡설처럼 다가올지 모를 내용을 사족처럼 덧붙여보았다. 다만 크리스 마르케라면 하늘에서도 자신의 영화를 통해 세상의 동향에 이런저런 말을 엮는 행위를 나쁘게 보지만은 않을 것 같다. 연재를 통해서 스스로 되묻고 싶었던 건 이런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기술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에 관한 물음으로 귀착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 말이다. 📖